

한·미 FTA 체결 임박...대안 없는 전남 농업

# 쌀 포함땀 영세농 초도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시 농업분야 타격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농축산물의 가격이 우리보다 낮고 품목에 따라 질도 좋아 미국산 수요가 늘어 우리 농축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한국농업생산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전남 농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농촌사회 붕괴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농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미흡하다.

보리 702억원·쇠고기 400억원 생산감소  
미국산 쇠고기 대량 유입 축산농 치명타

■한미 FTA에 따른 전남 주요 품목별 연간 생산감소액 (단위:억원)

구분 (현행관세율%)	보리 (299)	콩 (487)	마늘 (360)	양파 (135)	고추 (270)	배 (45)	쇠고기 (40)	돼지고기 (20)	닭고기 (20)
전국점유율(%)	52.4	23.3	39.0	51.0	17.4	23.0	15.2	9.7	14.5
피해 추정액 (억원)	702	632	121	93	70	100	400	170	133
5년내	434	287	25	34	20	67	367	142	111
10년내	401	254	12	28	15	45	339	131	60

별 생산감소액은 보리 702억원, 콩 632억원, 마늘 121억원, 양파 93억원, 고추 70억원, 배 100억원, 쇠고기 400억원, 돼지고기 170억원, 닭고기 133억원으로 산출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분야다. 협정이 타결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미국산 쇠고기 등 축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되면 국내 축산농가는 치명타를 맞게 된다.

그러나 이는 쌀을 제외한 분석이다. 전국 연간 농업생산액 26조 5천억원의 27%인 7조 2천억원, 전남 농업

산액 6조원 가운데 26%를 차지하는 등 한국농업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쌀이 포함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한미 FTA 타결로 상당수 영세 농업인의 퇴출이 예상되는 마당에 쌀까지 포함되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수반할 것이라는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 타결이 타결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미국산 쇠고기 등 축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되면 국내 축산농가는 치명타를 맞게 된다.

그러나 이는 쌀을 제외한 분석이다. 전국 연간 농업생산액 26조 5천억원의 27%인 7조 2천억원, 전남 농업

FTA 이행 지원자금 1조 2천억원을 확대해 피해농가의 소득을 보전한다는 단기 대책을 세워두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2013년까지 119조원을 투입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한미 FTA 피해구제에 포커스를 맞춰 6월까지 조정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FTA이행 지원자금을 활용한 농가 소득보전은 눈 앞의 피해에 대한 대응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FTA 이행지원 기금은 한미간 협정 타결에 따른 농업피해가 가져올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가깝다는 평가다. 또 농업농촌종합대책은 FTA 이전에 정부가 농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마련한 방안이어서 농업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해법을 포괄하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전남도도는 FTA에 대응해 농업제도 개선을 위한 44개 정책과제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한미 FTA 협정이 마무리돼 품목별 피해추정액 등이 파악되면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경기자 unipark@kwangju.co.kr



한미FTA 통상장관급 회담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민주노동당 주최 한미FTA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광뉴스

### ■FTA 마지막 담판 날갈 쟁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성과를 최종 결정할 양국 통상장관급 회담이 26일부터 막을 올린다. 양측은 실질적 협상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협상의 진척도를 봤을 때 협상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상태다.

양국 협상단은 민감하고 파괴력 있는 의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통상협상의 막판에 이르는 '빅딜', 즉 큰 사안의 주고받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농산물·섬유 '빅딜' 분야서 제외 쌀 등 현안은 언급 않을 가능성

양측은 지금까지의 고위급 접촉을 통해 서로 제시할 일괄 타결안(패키지)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농산물 분야는 다른 분야와 연계하지 않고 내부에서만 협상한다는 '스물 달' 원칙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산물과 빅딜이 예상됐던 섬유분야에서도 내부 타결 방침이 전해

지고 있어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더라도 자동차와 방송 등 서비스·투자, 지적 재산권, 의약품 등은 여전히 '빅딜'의 가시적 후보군이다.

또 하나의 예상 해법은 민감한 영역에 대해 서로 하나씩 포기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원래 국적선에

만 미국 연안해운을 허용하는 미국의 '존스법'을 우리측이 건드리지 않는 대신, 미국도 쌀을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예상됐던 것이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않는 사안은 김종훈 대표가 워싱턴 고위급 회담이 끝난 뒤 언급했던 '빌트인'(built-in)방식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5일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국간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FTA를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배수진을 쳤다. /연광뉴스

### 광주일보 2007 테마 이젠 實利다

<20> 기업유치 세계로 뛰어라

# 외국인 학교·전용 병원... 투자 유인 인프라 급하다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는 광주·전남지역 지자체 투자유치단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느끼는 난감한 순간이 있다고 한다.

외국 현지 기업인이나 바이어들이 '국제공항(인천)과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 지'를 물었을 때가 바로 그 때라고 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에 대해서까지 묻는 추세라고 한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광주(전남)가 수도권에 비해 물류 접근성이 뒤지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 수도 없어 얼굴이 붉어지기 일쑤라고 한다.

지난 19일 미주 지역 투자유치에 나선 광주시 투자유치단이 연일 수백만 달러의 투자유치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소식을 알리고 있다. 전남도 역시 EXPO 유치 활동 등을 겸해 수시로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접근성(물류, 교통)과 인적·물적 자원 등에서 수도권에 뒤떨어진 광주·전남은 해외 투자 유치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질적인 투자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역의 투자 여건을 갖추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경제 전문가와 기업 CEO들은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환경 조성고 고급 인력 충원, 더 나은 인센티브 등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외국 기업의 지방으로의 이전을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다닐 수 있는 '외국인 학교' 설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해 미국의 세계적인 전자 관련 회사인 벨렐사가 광주지사 설립을 검토했으나 교육 여건 미비로 이유로 포기했다. 또한 세계적인 의약품 관련 기업이 화순 백신공장 설립을 추진했으나 역시 부족한 교육여건 탓에 백지화했다.

부산시가 지난 해부터 '외국인 학교' 유치에 나섰다. 총장도가 올 초부터 외국인 CEO 전용 주거마

을 조성에 들어간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광주시·전남도가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 종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오는 2012년 완성을 목표로 조성중인 나주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한전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설문결과, 이전 대상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도 역시 교육시설과 의료환경이었다.

전문가들은 특히 광주와 전남이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동전략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서남권종합개발

###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투자 유치 실패 잇따라 광주·전남 공동전략·면세 등 인센티브 필요



계획, 공동혁신도시 등 장기적으로 수년 이내에 완성되는 사업이 많은 만큼 광주·전남 접경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각 사업 진행시 외국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외국인 투자를 위한 인프라를 개별적으로 확보하기 보다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 편승해 자연스럽게 추진하는 쪽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시·도는 해외 투자 기업에 대한 공장부지 무료제공(투자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이나 각종 세금 우대 등 타 지역에 비해 우월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개발 관련 연구소나 첨단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www.park1004.com

호남최고의 자택에 위치한 **가족봉안묘원 특별분양!!**

●분양대상 품목  
●전하는 비밀

062-521-1100

때부터 자손이 번창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금계포탈형**」의 아름다운 청계강원

●분양대상 품목

062-521-1100